

DDR 경연...사경...불상·탑 만들기...

청소년 봉축행사 '눈에 띄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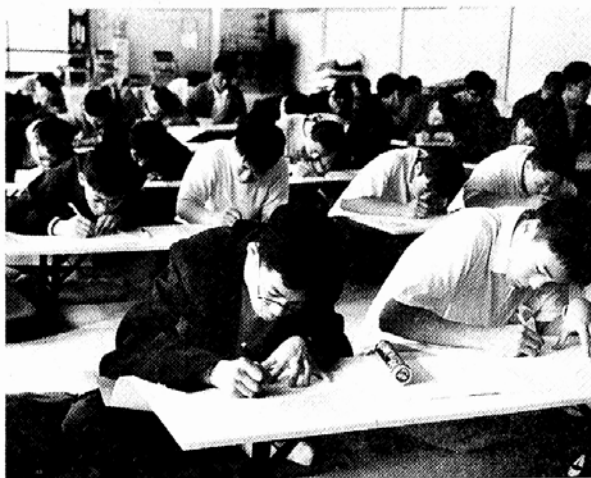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준비 저희도 한몫 거들게요."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기 위한 교계의 청소년단체와 중립학교들의 움직임이 다채롭다. 또 그동안 행사를 위한 행사만을 해 온 것으로 비난 받아 온 일부 단체에서도 올해는 실속과 특색을 두루 갖춘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어 청소년 불자들에게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파라미타·청교련 등 이색프로 준비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파라미타 청소년협회(이하 파라미타)가 마련한 행사다. 그동안 사경대회와 재등행렬 정도로만 봉축 행사를 진행해 왔던 파라미타는 봉축위원회와 공동으로 5월7일 종로 거리에서 '청소년 대경연대회'를 오후 4시부터 개최한다. 또 5월

6일에는 '청소년 사경 공모전'에서 뽑힌 167점을 조계사 앞 거리에 전시하며, 관람객들과 함께 찰흙으로 불상 불탑을 만드는 '조형물 만들기'도 펼칠 예정이다. 대한불교청년교화연합회가 주최하는 청소년 종합예술경연대회가 5월28일 동국대 중앙당에서 열린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국악연주, 탈춤, 마당극, 고전무용, 판소리 등 우리 전통 문화의 우수성을 청소년들에게 널리 보급하기 위해 마련한 것. 참가접수는 5월6일까지다. 광동중학교는 5월10일 학교 법당에서 '창작등 경연대회'와 '불교문화 창작대회'를 연다. 특히 불교문화 창작대회는 카드·캐릭터·만화·조형물 등을 청소년들의 반목이는 재지에서 찾아내겠다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청소년들의 행사가 풍성하다. 사진은 파라미타청소년협회가 매년 개최하는 청소년 사경 공모전.

는 취지로 준비됐다. 또 D.D.R(출계인) 경연대회와 연꽃 어울마당을 통해 봉축 행사를 축제 분위기로 만들 계획이다. 이외에도 광동여고는 5월9일 '불교문화 그리기대회'와 '봉축백일장'을, 동대부중은 5월8일 교내 강당에서 학부모와 교사, 학생이 함께 참가하는 '연등제작 경연대회'와 '전국 청소년 통일 환경 문화예술대회'를 가진다. 또 명성여고도 5월10일 '관음보살 상서 기념비 제작 및 탑들이' 행사를 개최한다. 청소년파라미타협회 이병두사무국장은 "청소년들의 문화적인 취향과 관심이 과거에 비해 많이 바뀌었다"며 "이에 따라 청소년들을 위한 봉축 행사도 그들이 정말 좋아하는 이벤트를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익 기자 (jikim@buddhapia.com)

사찰 편역을 찾아서

③ 대원군의 통도사·화계사 편역



석과 이하응(1820-1898)은 영조대왕의 현손으로 조선 제26대 임금이 고종의 아버지이다. 그는 1843년 흥선군(興宣君)에 봉해지고 종친부의 유사당상, 오위도총부의 도총관 등의 벼슬을 지내기도 했으나, 안동 김씨의 세도정치 아래에서 늘 움츠린 생활을 하였다. 1863년 철종이 후사없이 세상을 떠나자 익종비 조대비(숙종)의 후인으로 불려 아들 명복(命福)을 왕위에 세우고 섭정을 하였지만 서원철계, 원남전 정수 등의

통도사 '금강계단' 강함·부드러움의 원용조화

화계사 '화계사' 질박함 풍기는 예서체 백미

실정으로 인해 1873년 하야하였다. 흥선대원군은 서울 화계사의 만인(萬印)으로부터 충남 예산 가야사의 터가 "왕손이 나올 곳"이라는 말을 듣고 절을 불태워 그 자리에 부친의 묘를 썼는데, 훗날 둘째 아들이 고종으로 왕위에 오르자 그 보답의 뜻으로 가야사와 가까운 곳에 보덕사를 세우기도 하였다. 그는 서울 화계사(명부전)·(화계사), 서울 흥천사(흥천사)·(해서, 예서)·(육정루)·(서선실), 남양주 흥국사(흥국사)·(인명인 대한불교진흥원)

건강백과

해독 요법

해독요법의 목적은 우리 신체의 모든 세포가 최적의 상태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신체로부터 독소를 제거하고 혈액을 맑게 하며, 장 기능을 회복하고 소화력을 촉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곧 해독 요법이다. 신체 교류의 재생과 치유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이음세막사(예한의원 원장)의 6단계 해독요법을 소개한다.

첫째, 건강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한다. 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인스턴트 식품의 사용을 줄이며 유기농 음식물의 섭취를 통해 일상 생활에서 인체에 유발할 수 있는 독소를 줄인다.

둘째, 순환을 증진시킨다. 손상된 조직에는 신체의 자정작용으로 영양분, 산소, 질병 방어세포가 전달된다. 이는 신체 스스로 정화작용을 일으켜 대사산물,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 등 여러 가지 독소를 제거하기 때문이다.

다. 다양한 운동과 레이저 치료는 혈류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 셋째, 배설을 강화시킨다. 피부의 땀, 신장, 장과 같은 배설통로를 열어주고 강화함으로써 배설이 잘되게 한다. 장 해독요법이나 피부 발한요법도 좋은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장 기능을 강화하는 데는 사우나가 좋다.

넷째, 위장계를 회복시킨다. 장관계의 불균형은 해로운 박테리아와 효모균을 조절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을 만들어 낸다. 아침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이 좋다.

다섯째, 간 기능을 활성화시킨다. 간은 피를 맑게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인 만큼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한약인 대계(밀크티스)를 복용하여 담즙의 생성을 자극해 독소를 제거하는 방법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여섯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라.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마음의 독을 없애는 가장 중요한 열쇠다. 또 명상요법, 취미, 독서 등 적절한 휴식을 통해 심신의 피로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학부모·주민 불교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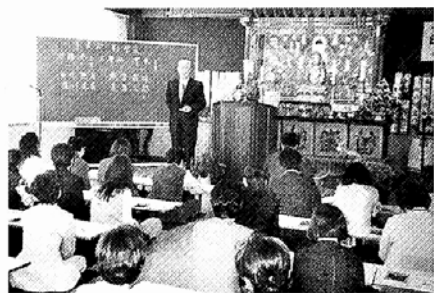
동대부중 개설 '연꽃학교' 인기

"부처님의 지혜를 잘 활용하면 자녀교육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18일 오전 10시 동대부중 큰법당에서 문을 연 '동대부중 연꽃 불교학교'의 강의현장. 특별 강사로 나선 김상숙교장(동대부중)은 칠판에 경전 내용을 옮겨 적으며 열띤 강의를 펼쳤다.

열정 넘치는 법당안에 빼곡히 들어선 50여명의 학부모들도 비좁은 공간에도 불구하고, 노트를 펴놓고 메모하는 등 열기가 가득했다.

이번에 다섯 번째인 '연꽃 불교학교'는 △부처님의 생애 △사찰예절 △근교리 △대승불교 △불교문화 △불교의 의미 등을 우인보 교법사가 두달 동안 단계별로 알기 쉽게 설명해 학부모들과 지역주민



동대부중은 학부모 및 지역 주민들을 위한 불교교과 교리 강좌인 '연꽃 불교학교'를 개강했다.

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두 번째 수강한다는 반야행보살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마련한 시행 강좌이기 때문에 더욱 애착이 간다"며 "아침에 아이와 같이 학교에 다니니 아들과 대화도 많아졌다"고 즐거워했다.

청교련 아산지부 어울마당

청소년단신

대한불교청년교화연합회 아산지부는 23일 뿌리나 교육원에서 청소년 어울마당 '열린마음! 한마음' 행사를 2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개최했다. 청소년들의 불우시절 방편을 통해 봉사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풍물놀이, 레크리에이션, 장기자랑 등의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흥겨운 놀이 마당이 끝난 뒤에는 보육원 청소년과 원생 돌보기 등의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도 이어졌다.

시 육군사관학교에서 '제7회 장애인 날들이 행사'를 갖는다. 일반인들에 대한 장애인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게임을 비롯해 음악공연, 장기자랑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02)2278-8672

광동학원 5백명 수계식

광동학원 교법사단은 5월8일 봉선사 청동루에서 광동학원 3개학교 5백여명을 대상으로 합동수계식을 봉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수계법회에 이어 풍물놀이와 게임 등을 진행하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비롯해 봉선사 경내 및 부도밭에서 환경 봉사활동도 펼친다. (0351)873-3972

파라미타 신입회원 입회식

파라미타대전지회는 15일 보문고 대법당에서 '2000년 신입회원 입회식'을 거행했다. 청소년지도자를 비롯해 4백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이 자리에서 이은정 지회

장애인 날들이 행사

우리는 선우는 5월14일 오전 10

어린이날 부처님 그리기대회

'불광'·목아박물관 공동주최

어린이 날을 맞아 부처님을 그리는 그림대회가 열린다. 월간 '불광'과 '여주목아박물관'은 공동으로 5월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목아박물관에서 '제6회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리기 대회'를 마련한다. '스스로 하는 어린이가 됩시다'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그림 그리기 외에

'신나는 서바이벌 따라잡기' 놀이도 함께 펼쳐진다.

이번 대회의 참가대상과 부문은 유치원·초등1~2학년은 크레파스화, 초등3~4학년은 수채화, 초등5~6학년은 목판화 등. 한편 월간 '불광'과 목아박물관은 제5회까지의 수상자 39점을 담은 '역대수상작품집'을 발간했다. (www.bulkwang.org/grim.html)

몸을 다스리는(治身)

자·연·건·강·식·품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닌 귀신(神)이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근본이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효(孝)가 백행(百行)의 근본, 천하의 대본(大本)이 되며 효, 그 다음이 충성, 의리, 신의가 된다.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와 배설을 잘하는 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것(治身)이다. 몸을 잘 다스리면 피로도 없고 병도 없으니 신진대사가 원활하여 몸이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치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있어야 수신(修身·몸을 닦는 것)을 할 수 있고 수신을 잘하여 도(道)를 깨달은 분이 성인(聖人)이니 성인이라야 계가(齊家·집을 다스림)·치국(治國·나라를 다스림)·평천하(平天下·세상을 평화롭게 함)를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오복(五福) [첫째, 수(壽·건강과 장수)·둘째, 부(富·부와 귀)·셋째, 강녕(康寧·편안함)·넷째, 유호덕(攸好德·덕을 좋아함)·다섯째, 고종명(考終命·잘 죽음)]을 다 이룬다. 사람은 잘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복의 첫째가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수(壽)가 되고 마지막이 편안하게 잘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잘 치신(治身)하여 몸을 잘 닦아 도(道)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권력, 재산, 명예, 무병장수를 얻으려면 길이 좋은 자연건강종합식품을 먹고 몸을 잘 다스려 몸을 잘 닦아서 도를 깨달아야 한다.

「불로화정(不老化精)」, 「술호소정액(松素精液)」, 「술선식(松仙食)」 등 「치신(治身)자연건강종합식품」은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方丈山)인 지리산에 있는 본사 식품제조공장에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不老化精)



신중 사찰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시연스님이 40여년전 은사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염자(견우의 개)와 감식초의 100여종의 첨가물 [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은 노소(老少),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호전되어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소화불량·설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되며 2개월만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배불리 먹어도 비만이 안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퍼지며 다량의 음주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가 격 정가 70만원(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분에게 50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구입문의 : (053)655-2227 (011)808-8880
입금구좌 : 대우은행 161-07-412768-001
예금주 : 대우여래원

효성양방 · 한방병원 무료치료안내

천하의 명산 울산 가지산(경남도립공원) 자연공원에 의료법인 태명재단은 현재 380억원을 투자하여 9만평의 대지위에 노인복지 시설인 효성노인병원, 양방·한방병원 300병실과 104실의 실버타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의료법인의 자금과 불사(佛事) 시주금으로 마련한 4백억을 투자하여 건축허가본 실버타운 300여실을 증축하고 한국목탑(木塔)형식의 3층 법당(150평규모), 세계 최대규모인 108미터 열반와불(臥佛)상과 10만위(位)의 영골(靈骨)을 모시는 영묘사리탑(靈廟舍利塔), 열반 와불의 테마공원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효성양방 · 한방병원 부분전경

정신병, 신경성 질환, 당뇨병, 중풍(와사풍 포함), 관절염, 위장병,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노인분들이 완치될 때까지 무료로 치료해(약 1개월안에 치료 가능, 입원실 사용, 식대 각자 부담) 드리려고 하오니, 전국의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법원 효성양방 한방병원 이사장 김시연

(이사장 직통) 대구 ☎ (053)655-2227 (011)808-8880 병원비서실 ☎ (052)254-26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북면 덕현리 산 8-4

◆ 모든 질병과 성인병은 의법만 잘 풀어버리면 완벽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 스님들 주변에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무료치료의 인연을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불로화정 본포